

繼善篇

子曰、爲善者 天報之以福 爲不善者 天報之以禍

⇒ 공자가 말하기를, 하늘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화를 주신다.

⇒ 孔子が言うのに空は善良な事をする人に福を与えて、悪事をする人に禍を与える。

漢昭烈 將終 勅後主曰、勿以善小而不爲 勿以惡小而爲之

⇒ 한나라의 소열황제(昭烈皇帝)가 세상을 떠날 때에 후주(後主: 그의 아들)에게 조칙을 내려 말하기를, 비록 착한 일은 작다 해도 이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되고, 비록 악한 일은 작다 해도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漢国の昭烈皇帝が世を去る時に後主(彼の息子)に詔勅を下げて言うのに例え善良な事は小さいと言ってもこれ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例え悪事は小さいと言ってこれをしてはならない。

莊子曰、一日不念善 諸惡 皆自起

⇒ 장자가 말하기를, 하루라도 착한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 악이 모두 저절로 일어난다.

⇒ 莊子が言うのに一日でも善良な事を思わなければ多くの悪全てが自然に起きる。

太公曰、見善如渴 聞惡如饔 又曰、善事 須貪 惡事 莫樂

⇒ 태공이 말하기를, 착한 일을 보면 목마른 사람이 급히 물을 찾듯이 서둘러서 행동하고, 악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귀머거리인 양 못 들은 척하라.

태공이 다시 말하기를, 착한 일은 모름지기 탐내어 하고, 악한 일은 즐겨하지 말라.

⇒ 太公が言うのに善良な事をすれば喉が乾く人が急に水を捜すように急いで行動し、悪事に対する話を聞けばつんぼであるように聞けない振りをしなさい。

太公が言い換えるのに善良な事は当然貪ってし、悪事は楽しんで行わないようにしなさい。

馬援曰、終身行善 善猶不足 一日行惡 惡自有餘

⇒ 마원이 말하기를, 일생 동안 착한 일을 행하여도 착한 일은 오히려 부족하고, 단 하루만 악한 일을 행하여도 그 악은 그대로 남아 있다.

⇒ 馬援が言うのに一生の間善良な事を行っても善良な事はむしろ不足、ただ一日だけ悪事を行ってもその悪はそのまま残っている。

司馬溫公曰、積金以遺子孫 未必子孫 能盡守 積書以遺子孫 未必子孫 能盡讀 不如積陰德 於冥冥之中 以爲子孫之計也

⇒사마온이 말하기를, 큰돈을 모아서 자손들에게 남겨 주어도 자손들이 그 돈을 다 지킬 수 없고, 많은 책을 모아서 자손들에게 남겨 주어도 자손들이 그 책을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남이 모르는 가운데 음덕을 쌓아서 자손을 위한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만 같지 못하다.

⇒司馬溫が言うのに大金を蓄えて子孫たちに残しても子孫たちがそのお金をすべて守ることができないし、多くの本を集めて子孫たちに残しても子孫たちがその本をすべて読むことができないから他人が分からない中で陰徳を積んで子孫のための遠大な計画を立てることと同じではない。

景行録曰、恩義 廣施。人生何處 不相逢。讐怨 莫結。路逢狹處 難回避。

⇒《경행록》에 이르기를,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풀라. 인생을 살다보면 어느 곳에서인가 서로 만나지 않으랴.

원수와 원한을 맺지 말라. 길을 가다가 좁은 곳에서 만나게 되면 피하기가 어렵다.

⇒《景行録》で言うのに恩恵と義理を広く施しなさい。人生を営むとどこかでは必ず会える。敵と恨みを作らないこと。道に行くと狭い所で会えば避けにくい。

莊子曰、於我善者 我亦善之 於我惡者 我亦善之。我既於人 無惡 人能於我 無惡哉。

⇒장자가 말하기를, 나에게 착하게 하는 자에게 나 또한 착하게 하고, 나에게 악하게 하는 자에게도 또한 착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남에게 악하게 하지 않으면 남도 나에게 악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莊子が言うのに私に善良にさせる者に私も善良にさせるし、私に悪しくする者にもまた善良にさせること。私が他人に悪しくしなければ他人も私に悪しくしないだろう。

東岳聖帝垂訓曰、一日行善 福雖未至 禍自遠矣 一日行惡 禍雖未至 福自遠矣 行善之人 如春園之草 不見其長 日有所增 行惡之人 如磨刀之石 不見其損 日有所虧。

⇒동악성제가 훈계를 내려 말하기를, 하루 동안이나 착한 일을 해도 복은 곧 따르지 아니하나 화는 스스로 멀어지고, 하루 동안이나 악한 일을 해도 화는 비록 이르지 아니하나 복은 스스로 멀어진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봄동산의 풀과 같아서 그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나 날로 더하는 바가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칼을 가는 숫돌과 같아서 닳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나 날로 이지러지는 바가 있다.

⇒東岳聖帝が訓戒を下げて言うのに一日間も善良な事をして福は直ちに來ないが災は自ら遠くなる。一日間も悪事をするると災は來ないが福は自ら遠くなる。善を行う人は春の草のようでその育つのが見えないが日々育つのが見える。悪を行う人は刀を磨く砥石のようで擦れることが見えないが日々欠けるところがある。

子曰、見善如不及 見不善如探湯。

⇒공자가 말하기를, 선을 보면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악을 보면 끓는 물을 만지는 것처럼 행동하라.

⇒孔子が言うのに善を見ると及ばないことく行動して、悪を見れば沸いているお湯を触ることのように行動しなさい。